

캠프마켓,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완료

기자 설명회 (회견문)

2021.11.29.(월), 11:00

인천광역시청 브리핑룸

캠프마켓 환경정화 민관협의회

안녕하십니까

캠프마켓 환경정화 민관협의회 의장 이재영입니다.

캠프마켓의 다이옥신류 오염토양 11,031m³에 대한
정화사업은 2019. 5월에 시작하여 2021. 11월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26일에 열린 제16차 민관협의회를 통해
9월 30일 토양을 채취해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목표치인 100피코그램(pg-TEQ/g)보다 훨씬 낮은
2.18피코그램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대규모의 고농도 다이옥신 오염토를
완전히 정화한 첫 사례입니다.

1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이며,
100피코그램은 독일 등 유럽에서

유아용 놀이터 흙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캠프 마켓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정화목표를 100피코그램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민·관이 협의하여 다이옥신 정화목표를 설정하고
정화의 전 과정을 확인·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불안을 해소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간 이어진
캠프 마켓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주거지역이 밀집된 도심한복판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열탈착 방식(IPTD) 적용으로
토양에서 다이옥신을 완전히 분리하고,

분리된 가스도 열산화 공정을 거쳐 무해화하여
배출함으로써 토양과 대기를 완벽히 정화하였습니다.

다이옥신 오염토 정화 완수 뒤에는
캠프 마켓 민관협의회의 노력이 컸습니다.

2018년 10월 출범한 캠프 마켓 민관협의회는
분기 1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의견을 모았고,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회의도 마다하지 않으며,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이옥신 정화사업 발주방안, 실증시험 과정 검증 등
정화의 전 과정을 확인하고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캠프 마켓 주변 6개 지점의 대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수치를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 것과

정화결과 분석 시 교차 검증을 도입함으로써
정화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캠프 마켓 민관협의회에의 큰 성과물입니다.

정화과정에서 기상악화 등으로 열탈착시설 내부 온도가
기일 안에 목표 온도에 도달하지 못했던 문제점과
한여름에 열탈착 비가림시설 내부온도가 50℃를 넘어가는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시도한
대규모 다이옥신 오염토 정화였기에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어려운 과정과 여건 속에서도
다이옥신 정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기관, 전문가, 시공업체 등이 정화 전 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애써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긴 시간이었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민관의 완벽한 협업으로

당초 정화목표 이상을 달성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

본 사례가 타 지역 다이옥신 정화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